

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4. 2. 4(화) 15:1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경재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6 기타사항

가. 수신료 조정(안) 검토 관련 한국방송공사 의견 청취

○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수신료 조정(안) 검토 관련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, 길환영 사장으로부터 한국방송공사의 의견을 청취함

○ 한국방송공사 의견 주요내용

①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

- 국가적 지원 없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투입된 7,500억 원의 자금은 대규모 차입금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
- 수신료는 1981년 이후 동결된 데다 광고는 매체 증가와 경쟁 심화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
- 그동안 제3의 수입원 확대와 경영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구조가 고착화 되어 수신료 현실화 없이는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

② 광고의존도를 줄여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 확립 필요

-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한 광고 의존도 확대로 주재원인 수신료보다 보조재원인 광고의 비중이 오히려 높은 역전현상이 초래되었음
-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, 공영성과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신료 비중을 50% 이상으로 높이는 공영적인 재원구조의 구축이 절실함

③ 디지털·스마트 시대 공적책무의 충실한 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원 확보 필요

- 디지털·스마트 시대의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콘텐츠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
- 경제적, 기술적 약자들의 디지털 정보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함
- 재난재해의 위협이 급증하는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강화 및 UHD-TV 등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에도 기여해야 함

6. 폐 회 (17:15)